

기계설비분야 공생발전 ‘모색’



▲ 대한설비건설협회는 지난 8월 23일 서울 청담동 리베라호텔 제우스홀에서 기계설비건설 공생발전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대한설비건설협회(회장 정해돈)는 지난 8월 23일 서울 청담동 리베라호텔 2층 제우스홀에서 협회 회장단 및 임원, 그리고 한국종합건설기계설비협의회 회장단 및 임원 등과 함께 기계설비건설 공생발전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정해돈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그동안 종합건설기계설비협의회와는 기계설비 단체 모임인 기계설비협의회를 통

해 교류해 왔으나 우리협회와의 직접적인 간담회는 2006년 만남 이후 정말 오랜만에 개최되었다”고 언급했다. 정해돈 회장은 또 “건설업계 전체의 총체적인 위기 속에서 전문건설업계의 극심한 수주가뭄은 분별력을 상실한 저가덤핑으로 이어져 하도급업계 전체가 공멸의 위기로 내몰리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지난 5월에 개최된 워크숍에서 자금의 어려운 문제해결을 위한 가장 빠른 길



▲ 정해돈 회장은 “오늘 간담회가 기계설비가 한단계 도약·발전할 수 있는 촉매제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 김양섭 한국종합건설기계설비협의회 회장은 “기계설비 시공을 담당하고 있는 양 업계가 자주 만나서 대화와 타협으로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자”고 말했다.

은 건설사 부서장들과의 수시 만남으로 서로간의 공감대를 형성하는 길이 우선이라는 지적에 따라 오늘 자리를 마련하게 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서 정해돈 회장은 “흔탁한 입찰질서를 바로잡고 적정한 공사원가가 책정될 수 있도록 리드할 수 있는 주체는 건설사 부서장들”이라고 강조하며 “오늘 간담회가 종합건설기계설비협의회와 우리협회와의 건전하고 발전적인 모임으로 기계설비가 한단계 도약·발전할 수 있는 촉매제가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어서 한국종합건설기계설비협의회 김양섭 회장[대림산업(주) 상무]은 인사말을 통해 “건설현장은 지금 매우 어렵다. 그렇지만 정의를 바탕으로 서로 대화와 타협을 통해 슬기롭게 극복하자. 또한 기계설비 시공

을 담당하고 있는 양 업계가 자주 만나 서로 소통하면서 기계설비 발전과 함께 아름답고 즐거운 사회를 만들어 나가자”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대한설비건설협회와 한국종합건설기계설비협의회는 대한설비건설협회가 회원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기계설비 하도급 실태조사 결과를 보고받은 후 △저가하도급 및 과도한 하도급 경쟁 입찰 △물가변동 미반영 등 부당한 하도급특약 △기계설비공사사업역 축소 방지 등 기계설비업계 하도급 현안문제에 대해 진지하게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논의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한국종합건설기계설비협의회란?

종합건설업체 기계설비 부서장들의 모임으로 현재 40개사, 48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기계설비 협의회 추대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 기계설비하도급 실태 설문조사

대한설비건설협회는 회원사의 저가하도급 및 불공정하도급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지난 7월 27일부터 8월 10일까지 2주간 회원사를 대상으로 저가·불공정 건설하도급관련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하도급 입찰, 계약, 대금수령, 동반성장 분야 등 총 4개 문항으로 된 설문조사 결과, 하도급 경쟁입찰에 참여하는 하도급 업체 수는 평균 6.8개 업체이며, 이윤이 없거나 실제 공사를 수행하기 어려운 수준의 공사대금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업체가 60%로 조사되었다. 또한 불공정 하도급 특약유형의 49%가 물가변동 및 설계변경이 없다고 응답했으며 민간공사의 경우 74%가 물가변동을 반영받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번 설문조사 결과는 저가하도급이 매우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나 원·하도급 간 장기적인 협력관계의 지속을 위해서는 하도급 금액의 현실화가 최우선되어야 할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국제 원자재가격 급등으로 주요 설비자재 가격이 작년 대비 평균 20% 이상 인상된 상황에서 물가변동 및 설계변경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적자시공을 면치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물가변동 및 설계변경에 대한 계약금액 반영은 공공공사 뿐만 아니라 민간공사에서도 절실히 반영해야 할 사항으로 지적되었다.

■ 기계설비업계 하도급 현안 문제

1. 저가하도급 및 과도한 하도급 경쟁입찰

현황

- 건설공사는 하도급계약금액이 원도급자 주금액의 82% 미만으로 하도급시에는 저가

하도급을 심사(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토록 되어있음

- 원도급자가 하도급대금을 낮출 목적으로 다른 하도급자의 견적을 보이는 방법 등으로 부당하게 하도급대금을 결정할 경우 하도급법(하도급법 제4조) 위반사항임

문제점

- 우리업계는 그동안 덤핑수주 자제, 공사비 제값받기 운동 등 자정노력을 기울였으나, 지금의 건설시장은 10년 전 IMF때보다 더욱 치열해진 저가하도급과 덤핑수주로 매우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종합건설업체가 하도급 예정금액을 실행금액 이하로 작성, 경쟁입찰로 발주하여 여러 차례 유찰시켜 과도한 하도급경쟁 입찰을 유도하고 있는 실정임

건의사항

- 원·하도급간 장기적 협력관계 구축을 위해 하도급예정금액 현실화와 하도급경쟁 입찰시 입찰참가업체의 일정수준 업체 규모별 제한과 업체수 제한
- '건설공사 저가하도급심사기준'에 의거 공정하게 저가하도급 여부 심사

2. 물가변동 미반영 등 부당한 하도급 특약

현황

- 원도급자가 물가변동 미반영 등 하도급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을 요구할 경우 법령 위반사항(건설산업기본법 제38조)임

문제점

- 고유가와 원자재가격 폭등으로 실행공사비는 급속히 증가하고 있으나, 하도급공사의

경우 물가변동을 대부분 적용받지 못하여(특히, 민간부문) 심각한 경영악화에 처함

* 2010년도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강관, 동관, PVC관 등 설비의 대부분 자재가 작년 대비 현재 평균 20% 이상 상승

건의사항

- 공공공사뿐만 아니라 특히, 민간공사의 E/S 반드시 적용
- 하도급공사 착공(슬리브 시공 등)과 동시에 하도급계약 체결 · 하도급계약을 임의적으로 늦추어 하도급공사 E/S 적용 제외 방지

3. 기계설비공사업역 축소 방지

현황

- 시스템에어컨(GHP, EHP), 지열 냉 · 난방, 빙축열, 태양열, 강제환기, 건식PD 등 새로운 업역 분야가 발생됨에 따라 기계설비업역 한계가 불투명

문제점

- 기존의 중앙 냉 · 난방시스템방식의 대부분

이 개별 시스템에어컨방식으로 변경되어 시공물량이 크게 축소

- 시스템에어컨은 제조업체나 제조업체 협력사로 제한하여 발주
- 빙축열시스템, 지열 냉 · 난방, 강제환기, 건식PD 등도 장비공급업체에 발주
- 기계설비건설업계의 시공물량이 축소되고 기술발전에도 저해
- 샵 드로잉, 슬리브 설치 등 전체 관리는 기계설비업체가 수행하고 있으나, 장비공급업체가 배관, 닥트까지 시공함에 따라 전체적인 품질 및 안전관리에 문제 발생
- ※ 공공 발주기관에서는 시스템에어컨, 강제환기, 건식PD 등을 세부 공종별로 발주하지 않고 기계설비공사에 포함하여 통합발주

건의사항

- 세분화되고 있는 기계설비공종을 적극적으로 흡수해서 기계설비공사업역의 축소 방지



기계설비공사 분리발주 건의

-이상일 수석부회장-



▲ '백용호 대통령실 정책실장과 중소기업 간담회'가 지난 8월 18일 중소기업중앙회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대한설비건설협회 이상일 수석부회장(서울특별시회 회장)은 지난 8월 18일 중소기업중앙회 회의실에서 열린 '백용호 대통령실 정책실장과 중소기업 간담회'에 참석해 기계설비공사 분리발주를 건의했다.

이날 간담회는 중소기업중앙회가 중소기업 현안과제 및 동반성장 정책 등을 논의하기 위해 백용호 대통령실 정책실장 및 한미숙 대통령실 중소기업비서관을 초청한 자리로, 이상일 부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등 업계 대표 약 40여명이 참석했다.

백용호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인사말을 통

해 "정부는 대·중소기업의 올바른 기업문화 정착을 위해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다"면서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격차가 커지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이며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기계설비업계를 대표해서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이상일 부회장은 "기계설비는 저탄소녹색성장을 위한 핵심산업으로 국가 에너지의 40%를 소비하여 에너지절감을 위한 중요한 업역임에도 불구하고, 국가계약법상 건축공사에 통합발주되어 종합건설사로부

터 초저가 하도급을 받는 실정이다”면서 “기계설비공사를 전기공사처럼 분리발주하여 시공품질을 확보하고 중소기업을 육성할 수 있도록 국가계약법시행령을 개정해달라”고 건의했다.

이에 대해 백용호 정책실장은 “대·중소기업 모두가 윈윈 할 수 있는 건전한 동반성장 생태계 조성을 위해, 불합리한 부분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이 사안을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대한설비건설협회는 추가적으로, 기계설비 분리발주의 장점 및 국내외 설비공사의 분리발주 현황과 국가계약법시행령 개정 건의안 등이 포함된 ‘기계설비공사 분리발주

건의서’를 한미숙 대통령실 중소기업비서관에게 제출했다.○



▲ 이상일 부회장은 “기계설비공사를 전기공사처럼 분리발주하여 시공품질을 확보하고 중소기업을 육성할 수 있도록 국가계약법시행령을 개정해달라”고 건의했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건의안

현행	개정 건의안
<p>제68조(공사의 분할계약금지)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동일 구조물공사 및 단일공사로서 설계서 등에 의하여 전체 사업내용이 확정된 공사는 이를 시기적으로 분할하거나 공사량을 분할하여 계약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 1에 해당하는 공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p> <p>1. 다른 법률에 의하여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 발주할 수 있도록 규정된 공사</p> <p>2. 공사의 규모 등에 비추어 공구별로 분할 시공함이 효율적인 공사</p> <p>3. 하자책임구분이 용이하고 공정관리에 지장이 없는 공사로써 분리시공함이 효율적이라고 인정되는 공사</p>	<p>제68조(공사의 분할·분리발주)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공사의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공사의 물량을 분할하거나 공사의 공종을 분리하여 계약하여야 한다.</p> <p>1. 공사의 규모 등에 비추어 공구별로 분할 시공함이 효율적인 공사</p> <p>2. 다른 법률에 의하여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발주할 수 있도록 규정된 공사</p> <p>3. 기계설비, 조경 등 설계도서가 구분되어 있어 하자책임구분이 용이하고 공정관리에 지장이 없는 공사</p>

정부위탁업무 신설 등 주요현안 협의



▲ 대한설비건설협회는 지난 8월 30일 전국 시·도회장 회의를 개최했다.

대한설비건설협회(회장 정해돈)는 지난 8월 30일 설비건설회관 중회의실에서 전국 시·도회장 회의를 개최하고 그동안 협회가 추진한 사업에 대해 보고받은 후, 설비건설업 등록 등 정부 위탁업무 신설 등 업계 현안에 대해 협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정해돈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그동안 임원 선출, 예산확정, 시·도회 총회 등 눈코 뜰 새 없는 일정과 더불어 지방 자치단체장과 발주관서장들을 일일이 찾아다니며 기계설비 분리발주 등 회원사의 숙원사업 달성을 위해 고군분투하시는 전국 시·도 회장님들께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정해돈 회장은 또 “우리 협회는 그동안 기계설비시공·관리기준법의 조속한 통과를 위해 탄원서 제출, 국무총리 및 국토해양부장관 등 관계요로에 업계의 애로에 대한 제도 개선을 건의한 결과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 제도 문제점 개선 및 저가하도급방지대책 등이 일부 개선되었고, 종합건설기계설비 담당 임원들과의 간담회를 개최하여 혼탁한 입찰질서를 바로잡는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언급하며 “협회 내부적으로는 노무 강습회 순회 실시 및 협회와 조합의 동일건물 입주 계획 추진 등 회원사의 업무편익을 위해 노력했다”고 덧붙였다. ●

유공회원 포상 대상자 추천 심의



▲ 윤리위원회는 지난 8월 29일 설비건설회관 중회의실에서 윤리위원회를 개최하고 유공회원 포상 대상자에 대한 추천을 심의했다.

대한설비건설협회 윤리위원회(위원장 우광헌)는 지난 8월 29일 설비건설회관 중회의실에서 제62차 윤리위원회를 개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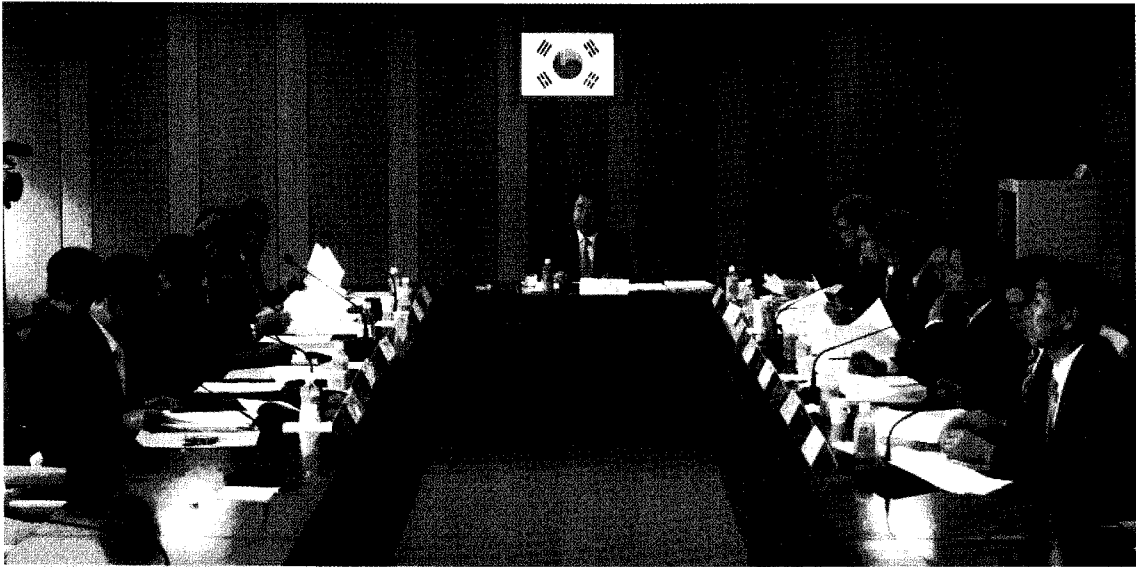
우광헌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금년 여름을 거치며 국제적으로 많은 변화가 있어 걱정이 많았는데, 특히 미국의 신용등급 하락으로 그 여파가 우리 업계에 어디까지 미

칠지 가늠하기 힘들 정도였다”면서 “어려움을 깨끗하게 헤쳐 나가길 바라며 회원사간 서로 도와주고 끌어주고 밀어주면서 함께 성장해나가길 기원한다”고 밝혔다.

이날 윤리위원회에서는 9월 22일 개최 예정인 제45차 임시총회에서 시상할 유공회원 포상 대상자에 대한 추천을 심의했다.☺

위원장에 이상일 서울특별시회 회장 위촉

인정기능사 총 21명 최종 합격



▲ 대한설비건설협회는 지난 8월 30일 제32차 인정기능사 심사위원회를 개최했다.

대한설비건설협회는 지난 8월 30일 설비 건설회관 중회의실에서 제32차 인정기능사 심사위원회를 개최하고 이상일 서울특별시회 회장을 위원장에 위촉했다.

이날 회의에서 정해돈 회장은 “건설공사 현장에서는 국가기술자격증은 없지만 수년간 각종 공사에 참여하면서 다양한 경험과 기능을 보유한 건설기술인들이 아주 많다”면서 “그동안 우리 협회는 5,400여명의 인정기능사를 배출하는 등 우리 업계의 인력난 해소에 큰 기여를 하고 있으므로 심사위원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고 밝혔다.

이날 인정기능사 심사위원회 위원장으로

위촉된 이상일 서울특별시회 회장은 “인정기능사 제도는 현장 경험과 기능을 보유한 건설기술인에게 매우 중요한 제도이므로 적극 홍보하여 우수한 기능인력들이 인정기능사를 취득할 수 있도록 독려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인정기능사 심사위원회에서는 총 42명의 서류심사 합격자 중 지난 7월 19일 한국폴리텍I대학 정수캠퍼스에서 실시된 인정기능사 실기검정에 합격한 21명에 대한 심사가 이뤄졌다. 이날 심의를 통과한 21명(배관 15명, 용접 3명, 기계조립 3명)에게는 9월중으로 인정기능사 경력증을 발급할 예정이다.○

가스시설시공업 정부위탁 업무지정 협의



▲ 가스설비공사협회는 지난 8월 19일 설비건설회관 중회의실에서 가스설비공사협회 회의를 개최했다

가스설비공사협회(위원장 조종택)는 지난 8월 19일 설비건설회관 중회의실에서 제 49차 가스설비공사협회 회의를 개최했다.

조종택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비가 많이 왔던 올 여름, 공사물량 부족으로 가스업계는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면서 “하반기에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더욱 열심히 노

력하자”고 당부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전문건설업 등록관련 업무를 사업체 단체에 위탁”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입법 예고됨에 따라, 가스시설시공업의 위탁기관 지정 등 주요 안건에 대해 협의했다.☉

총회 및 유공자 포상 등 심의·결정



▲ 서울특별시회는 지난 8월 25일 설비건설회관 중회의실에서 제239차 운영위원회를 개최했다

서울특별시회(회장 이상일)는 지난 8월 25일 설비건설회관 중회의실에서 제239차 운영위원회를 개최하고 △제40회 총회(임시) 소집의 건 △유공자 포상 심의·결정의 건 등 부의사항을 논의했다.

이날 운영위원회에서 이상일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집중호우로 인명과 재산피해, 그리고 미국의 신용등급 하락 및 유럽 일부국가의 재정악화 등으로 인한 여파가 국내 건설경기에 많은 어려움을 야기할 것으로 생각되어 걱정이 앞선다”면서 “업계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가운데 회사경영에 적극 매진하여 슬기롭게 난관을 타개하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날 운영위원회에서는 8월 업무 추진실

적과 9월 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받았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8월 업무 추진실적

- 2011년도 시공능력평가 공시 및 수첩기재
- 제19회 건설기능경기대회 개최안내 및 참가신청자 접수
- 2011년도 하반기 설비관련대학 장학생 추천의뢰
- 회원사 임직원 및 임직원 자녀 장학생 추천 접수
- 2011년도 시공능력 회원사 순위표 제작·배부
- 제40회 총회(임시) 관련 업무추진

■ 9월 업무 추진계획

- 제40회 총회(임시) 개최 준비
- 2011년도 회원명부 제작·배부
- 제2회 국토사랑 건설경제 하프마라톤 참가

협회 · 조합 업무를 한 걸음에... 제2도약 '다짐'



▲ 울산·경남도회는 지난 8월 19일 협회 사무처 이전 개소식을 갖고 제2도약을 다짐했다.

울산·경남도회(회장 김재홍)는 경남 창원시 중앙동에 위치한 한국교직원공제회 경남회관 7층으로 협회 사무처를 이전하고 지난 8월 19일 개소식을 개최, 제2도약을 다짐했다.

이날 개소식에는 안덕화 대한전문건설협회 경남도회 회장, 허성곤 경남도청 도시건설방제국장, 최만규 대한설비건설공제조합 부산경남지점장 등 기관 단체장과 울산·경남도회 회원사 등 총 20여명이 참석하여 현판식과 함께 축하떡 커팅식 가졌다.

김재홍 울산·경남도회 회장은 개소식에서 인사말을 통해 “새로 이전한 도회 사무처는 주위에 창원시청, 금융·보험·비즈니스 빌딩 및 백화점이 있는 중심가”라며 “회원사

들이 찾아오기 쉽고, 건물 내 주차시설이 잘 되어 있으므로 이용하기에 편리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건물 내에 설비조합 창원영업소와 한국기술인협회 창원지부가 같이 있어서 회원사들이 업무를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밝혔다. 또한 “앞으로 제2도약의 마음으로 회원 서비스 및 설비업역 확대와 협회 위상강화를 위하여 울산·경남도회 임직원들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울산·경남도회 사무처 이전은 지난 5월에 개최된 워크숍에서 회원사의 업무편익을 위해 협회 및 조합이 동일건물에 입주해 달라는 회원사들의 요청에 따른 것이다.○

경기지역 대학에 '기계설비 비전' 제시



▲ 경기도회는 지난 8월 26일 경기도회 사무처 회의실에서 '2011년도 상반기 산학협력협동 장학금 수여식'을 개최했다. (사진 좌로부터 김동우 대림대학 교수, 김영중 두원공과대학 교수, 김석환 회장, 김지희·양태천 경기도회 부회장, 민평기 본회 이사)

경기도회(회장 김석환)는 지난 8월 26일 경기도회 사무처 회의실에서 양태천·김지희 경기도회 부회장, 민평기 본회 이사, 김동우 대림대학 교수, 김영중 두원공과대학 교수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11년도 상반기 산학협력협동 장학금 수여식'을 개최하고, 대림대학, 수원과학대학, 신흥대학, 두원공과대학 등 4개 대학 8명의 재학생에게 총 800만원의 장학금과 장학증서를 수여했다.

이날 수여식에서 김석환 경기도회 회장은 "자부심과 긍지를 갖고 설비분야의 엔지니어로 성장해, 기계설비업계 발전에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해 달라"고 격려하며 학생들의 진로와 비전을 제시했다.

한편, 경기도회는 지난 2001년부터 경기

지역 4개 대학(대림대학, 수원과학대학, 신흥대학, 두원공과대학)과 산학협력을 체결, 설비건설업계 후진양성과 설비기술인의 자긍심 고취를 위해 매년 상·하반기에 걸쳐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다.◎

2011년 상반기 장학금 수여자 명단

성명	학교 및 학과	학년
김용은	대림대학 건축설비소방과	2
최은경		
김병국	수원과학대학 건축설비소방과	2
유혜영		
김태욱	신흥대학 건축설비설계과	2
박종혁		
마정환	두원공과대학 건축설비과	2
조환희		1

기계설비 인재 양성에 ‘앞장’



▲ 장학증서 수여 후 기념촬영(장효성 회장(왼쪽)과 김창석 춘천기계공업고 교장(오른쪽))

강원도회(회장 장효성)는 지난 8월 24일 춘천기계공업고등학교를 방문하여 장효성 회장, 김창석 춘천기계공업고등학교 교장, 손유현 사무처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빌딩자동화과 2학년 박철웅·엄찬현 학생에게 총 100만원의 장학금 및 장학증서를 전달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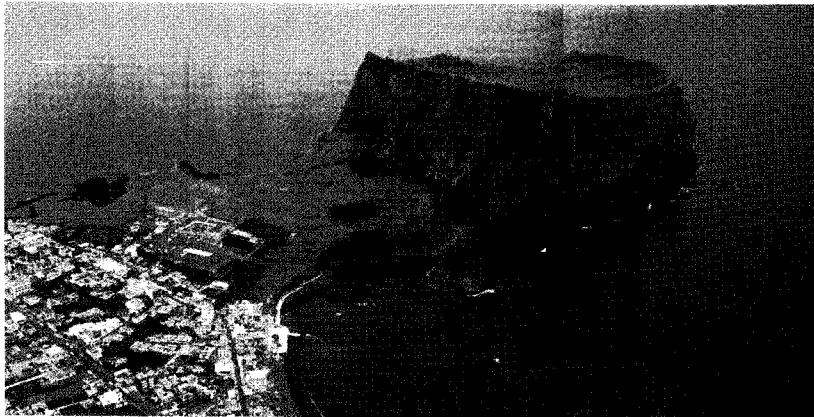
장효성 회장은 장학금을 전달하면서 “기계설비분야의 인재 양성을 위해 대한설비건설협회 강원도회 회원사가 뜻을 모았다”며 “열

심히 공부하여 장차 기계설비의 중추적 역할을 하는 전문인으로 성장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번에 장학금을 받은 박철웅·엄찬현 학생은 강원지방기능경기대회 배관직종에 참가하여 동매달을 수상한 인재이다.☺

장학금 수여자 명단

성명	학교 및 학과	학년
박철웅	춘천기계공업고등학교	2학년
엄찬현	빌딩자동화과	

장영홍 회장, '제주-세계 7대 자연경관' 선정 건설분야 분과위원 활동 펼쳐



▲ 제주-세계7대 자연경관 선정 범도민추진위원회 건설분야 분과위원으로 위촉된 장영홍 회장(사진 오른쪽)은 제주도 선정을 위해 전국 회원사 및 조합원사에게 활발한 홍보활동을 벌이고 있다.(사진 왼쪽은 제주 성산 일출봉)

'제주-세계7대 자연경관' 선정 범도민추진위원회 건설분야 분과위원으로 위촉된 장영홍 제주특별자치도회 회장은 회원사 및 조합원사에게 제주도가 세계7대 자연경관에 선정될 수 있도록 적극 동참하여 줄 것을 당부하며 활발한 홍보활동을 펼치고 있다.

장영홍 회장은 "제주가 세계7대 자연경관으로 선정되면 제주도는 물론 대한민국의 국가브랜드 가치가 상승하고 해외 관광객 증가로 관광 및 부대수입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설비건설인 모두가 투표 참여 및 홍보활동에 적극 동참하여 줄 것을 부탁했다.

제주도는 28개 후보지역 중 인간과 문화, 역사가 공존하고 있는 유일지역이며 세계 최초로 자연환경분야에서 유네스코 3관왕을 달성한 바 있어 선정이 기대되고 있다.

현재 각국의 명예를 걸고 치열한 경쟁 속에 전화와 인터넷 투표가 진행되고 있으며, 투표는 오는 11월 10일까지 완료된다. 투표 결과에 따라 11월 11일 세계 7대 자연경관이 선정된다.

투표 방법은 표와 같다.

기타 자세한 방법은 제주특별자치도(064-710-3951)와 대한설비건설협회 제주특별자치도회(064-755-9828)로 문의 바란다.☎

전화 투표	① 001-1500-7715 ② 전화 연결 후 60초간 영어 안내가 끝나고 "삐~ 소리가 나면 7715(제주코드) 입력 ③ 감사 멘트(Thank you)후 종료
인터넷 투표	① www.N7W.com 클릭 ② 투표배너 클릭 ③ 제주도 등 7곳 선택 후 →오른쪽 하단 'Continue to Step 2' 클릭 ④ 회원가입 후, 하단의 'Register' 클릭 ⑤ 회원가입시 가입한 메일함에 메일 수신 확인 ⑥ Successfully 단어가 보이면 투표 완료